
출장결과보고

2026 OECD Global Forum on Public Debt Management 참석

출장복명일 2026.03.20

1 출장 개요

□ 출장 목적 및 배경

- OECD Global Forum on Public Debt Management(이하 PDM Global Forum)는 선진국·개발도상국의 국채 관리 책임자, 중앙은행 관계자, 국채발행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포럼을 주최
 - 국채 관리와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범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, 효과적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함.
- 주요 국가 사례에 대한 비교·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채시장 운용 전략을 고도화하고, 해외 정책당국 및 학계 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

□ 출장지 및 방문기관

- 출장지: 프랑스, 파리
- 방문기관: OECD, Global Forum on Public Debt Management

□ 출장자

- 출장자 및 소속: 홍종수 연구위원, 양주영 부연구위원 (거시·금융정책연구부 국채연구팀)
- 예산과목: 국채발행 관리 지원사업

□ 출장일정

- 출장자 별 출장일자 상이
- Hotel Ohm by HappyCulture 호텔 (11 rue Claude Terrasse, 75016 Paris - France) 예약

2 출장 일정

일자	시간	주요 활동 내용	비고
2/28 (토)	12:05~ 현지 18:30	[양주영 출국] 인천공항 → 파리 샤를드골 공항(AF5093) 현지공항 도착 후 호텔 이동	14시간 25분 소요
3/2 (월)	12:05~ 현지 18:30	[홍종수 출국] 인천공항 → 파리 샤를드골 공항(KE901) 현지공항 도착 후 호텔 이동	14시간 25분 소요
3/3 (화)	9:00~9:30	학회 등록	
	9:30~12:30	세션 1 참석	
	14:00~17:30	세션 2, 3 참석	
	18:00~20:00	학계 전문가 간담회 예정 (스위스 중앙은행 Enzo Rossi 박사 등)	
3/4 (수)	9:30~12:00	세션 4, 5 참석	
	13:00~18:00	Global Debt Report 2026 라운드테이블 참석 (양주영)	
	18:00~19:30	칵테일 리셉션 참가 (양주영)	
3/5 (목)	21:00~ ~현지 17:20	[홍종수 귀국] 파리 샤를드골 공항 → 인천공항 (KE 902)	12시간 20분 소요
	21:00~		
3/6 (금)	~현지 17:20	[양주영 귀국] 파리 샤를드골 공항 → 인천공항 (AF 5092)	12시간 20분 소요

3 컨퍼런스 주요 내용

가. 거시경제 및 각국 정부부채 상황

- OECD 전망: 2026년 글로벌GDP 성장률2.9%로 하락(전년3.2%)
- 각국 정부 국채 발행 규모 역대 최고치 예상— 발행액의 약80%가 기존 채무 차환용으로 활용
- 신흥국 차입 수요도 사상 최고치 전망, 지정학적 리스크(미-중 무역분쟁, 중동 불안)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속
- 높은 이자비용 부담, 재정여력 축소 속 국채 유통시장 유동성 확보가 공통 과제로 부상

□ 프랑스(AFT, Agence France Trésor)

- 2024년 조기 총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 증대→ 독일 대비 스프레드 확대 등 시장 변동성 증가
- 대응전략: 예측 가능성·규칙성 유지로 투자자 신뢰 확보
 - 경매 규모를 사전 미공개하고 경매6일 전 프라이머리 딜러(PD) 협의 후 결정하는 유연성 보유
 - 신규 20년물 벤치마크 도입(역사상4번째), 녹색채권 단기물 추가
- NFP 지표 발표일과 경매 일정 충돌 시 경매 조기 집행 등 탄력적 대응 사례 공유
- 결론: 불확실성 환경에서도 발행 전략 기본 방침 유지, 유연성은 종목 선택에 국한

□ 남아프리카공화국(National Treasury)

-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수익률곡선 200~300bp 하락, 10년물 수익률 연 8% 이하 안착 목표
- 부채/GDP 비율 78.9% 정점 도달→ 2033~34년까지 중반60%대로 감축 계획
- 신규 수단 도입: 인프라채권(2025.12 최초 발행), 변동금리채 신규 도입
- 외화차입은 세계은행·AFDB·KFW 등 양허성 자금 활용→ 유로본드 발행 규모 2~3십억달러/격년 수준으로 축소
- 국영기업(전력공사Eskom) 긴급지원 2,540억 랜드 투입 완료→ 직접 재정리스크 해소
- 비거주자 국내채 순매수: 최근18개월간 1,700억 랜드 증가(직전4년 합계 초과)

□ 미국(US Treasury)

- 2025년 실질성장 2.2%, 2026년 애틀란타 연준 GDPNow 3.1% 전망
- 국채 시장 일평균 거래량 1조달러, 경매 낙찰율 안정적— 달러 비중 감소, 최종

투자자 직접 참여 증가

- 외국인 명목 보유 규모는 꾸준히 증가, 민간 외국인 투자 주도
- 스테이블코인 관련 단기채 추가 수요 잠재력 면밀 모니터링(시장 2~3조달러 성장 시 구조적 수요 요인)
- 관세 환급 판결 관련 잠재 리스크(~1,500억달러) → 현금잔고(8,000~9,000억달러) 및 단기채 발행으로 관리 가능 판단
- 채무 가중평균 만기(~70개월) 역사적 고점 수준 유지 중, 향후 발행 배분 변경 시 수요구조 분석 후 결정 예정

□ 칠레(재무부)

-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상 글로벌 통화사이클·지정학 리스크가 수익률에 직접 영향
- 로컬통화 채권시장 발전을 환리스크 완화 및 시장구조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

□ 인도(RBI)

- Repo 거래량 최근10년간3배 성장, 일평균 약710억달러 규모
- 시장구조: 시장레포(Market Repo) + TREPS(삼자레포, 2018년 도입) — TREPS 비중 약 66%
- 주요 대여자 뮤추얼펀드(66%), 주요 차입자 프라이머리딜러(레버리지 플레이어)
- 과제: 거래의 95~96%가 익일물 집중, 지방채(주정부채) 유동성 부족 문제 지속

□ 이탈리아(재무부)

- ECB 양적긴축(QT) 이후Repo 거래량3배 증가, 특별레포(Special Repo) 중심으로 구조 전환
- MTS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무부가Repo 거래 데이터 직접 모니터링 가능
- 50개 종목·500억유로 규모 국채 대여 프로그램(Repo Facility) 운용→ 스쿼즈 발생 시 시장 안정화
- 2023년 ECB 정책 변경 이후 정부 유동성의 약60%를Repo 시장에 투자 운용

□ 스웨덴(Riksgälden, 국가채무관리청)

- 정부기관 250개의 현금 통합관리 → 중앙은행 계좌를 매일 영점(zero balance)으로 관리
- PD 대상 Repo 프로그램3종 운용: 익일물(Overnight), Tom-Next, 레포스왑
- QE 시기 국채 자유유통물 50% 감소→ Repo 이용 급증, QT 이후 정상화
- 규제 이슈: LCR(유동성커버리지비율) 규제상 DMO가 HQLA로 미인정→ 은행의DMO 상대 거래 제약 발생

- T+2→T+1 결제 전환 시 당일 유동성 관리 어려움 예상 → 대응방안 검토 중

□ 캐나다(캐나다 중앙은행/ 재무부)

-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Repo 운용을 중앙은행이 주도
- 특정 종목 Repo 실패(특별레포 거래 급증) 탐지 시 해당 종목 추가 발행으로 유동성 공급(2025년 2건 시행)
- T+2→T+1 결제 전환 이후 Tom-Next 시장 위축, 익일물 증가 경험을 공유하며 타국에 주의 촉구

□ 아일랜드(NTMA)

- PD 지원 Repo 시설 시장가 기준으로 운용 중, 국채 유통시장 유동성 유지에 기여
- 주의사항: 금융위기 시 자국 국채 공매도 조장 논란 가능성 → 운용 근거 및 문서화 철저 필요

□ 캐나다(심층 발표)

- 헤지펀드의 유동성 공급자 역할 및 리스크
- 캐나다 국채 경매 낙찰 비중: 15년 전~0% → 현재 약 40% (발행잔액 3,500억 → 1.2조달러로 증가)
- 헤지펀드의 역할: 적극적 입찰로 정부 저비용 조달 지원, 기관투자자와 반대방향 포지션으로 자연스러운 시장조성 기능 수행
- 리스크: 위기 시 동일 방향 포지션 전환 → 시장 충격 증폭 가능성
- 대응전략: 달러 기반 및 기관투자자(연기금·보험사 등) 기반 확대로 헤지펀드 의존도 분산

나. 주요 공통 논의 사항

- 20년물 국채 수요: 네덜란드 연금개혁에 따른 초장기 수요 약화로 30년물 대신 20년물 선호 증가 추세(프랑스·독일 공통 경험)
- Repo 시장 발전 조건: ① 인프라 구축 → ② 인터달러 시장 활성화 → ③ 달러-투자자 확대의 단계적 접근 권장
- 스테이블코인 잠재 영향: 시장 규모가 2~3조달러 성장 시 단기채에 대한 구조적 신규 수요 가능성(미국 관심)
- 헤지펀드 시스템적 중요성 부각: 캐나다 경매 낙찰의 40%, 스웨덴 Repo 시장 순 포지션 2,500억 크로나 규모

다. 시사점 및 활용방안

- 발행 전략 유연성 확보: 불확실성 환경에서 규칙성·예측 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되, 종목 선택·규모에서의 유연성을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
- Repo 시장 활성화: 국채 유통시장 유동성 강화를 위해 Repo 시장 인프라 정비 및 국내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검토
- 헤지펀드 모니터링 강화: 국내 경매 참여 확대 시 시장 효율성 제고 효과와 위기 시 증폭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적 대응 방안 검토
- 결제 주기 단축 대비: 해외 T+2→T+1 전환 경험 참고하여 국내 Repo 시장 및 단기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전 분석 필요
- 스테이블코인 동향 모니터링: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이 국내 단기채 수요 및 국채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속 관찰